

스몰캡

7월, 코스닥에도 훈풍이~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의 설립배경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기업 육성, R&D, 벤처/스케일업 생태계 활성화, 지역 특화 성장 프로젝트 발굴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26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25/12/16)에 따르면 2026년 국민성장펀드는 총 30조원 이상 운용하며 직접투자 3조원(기금 1.5조원+민간 1.5조원), 간접투자 7조원(기금 1.5조원+민간 5.5조원), 인프라투자 10조원(기금 2조원+민간 8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기금 10조원)으로 구성된다. 투자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인공지능, 광물, 콘텐츠 등 12개와 관련기업으로 올해 하반기 투자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1차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를 전량 판매, 26.9월 2차 판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시 2H26 직접투자가 개시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026/3/18일)에서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및 역동성 제고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코스닥 시장을 구분하여 역동성과 경쟁력 제고관련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기업간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 있어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을 낮추고, 이로 인해 기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개선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을 승강형 세그먼트(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로 나눠 역동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프리미엄은 시총 상위 대형 성숙기업으로 80~170개로 구성,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개발하고 연계 ETF 도입을 통해 기관 등 투자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그먼트를 구분하는 개편안과 세부 내용을 발표, 이후 시장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코스닥 30주년 행사(7/1일)에서 개편 방향을 확정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월초 세그먼트 구분 개편안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6월 중 세부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 투자심리 개선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부실기업 퇴출 기준도 강화, 상장폐지 요건이 변화되고 있다. 기존 상향조정 계획을 조기화(연간→반기)하여 26.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며, 27.1월에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강화된다. 향후 관리 종목 지정 후 90거래일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 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으로 주가 조작의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는 것이 근거이다. 26.7월 이후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정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 종목에 대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 관리종목 지정 이후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 회복이 안될 경우 최종 상장폐지가 된다. 코스닥의 체질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서석준 Research Assistant
seokjun.seo@yuantakorea.com

종목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	------	----------

국민성장펀드: 2H26 투자 시작

국민성장펀드는 설립배경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로 첨단전략산업과 관련기업 육성, R&D, 벤처/스케일업 생태계 활성화, 지역 특화 성장 프로젝트 발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총 150조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방식은 직접투자 15조원, 간접투자 35조원, 인프라 투자 및 용자 50조원, 초저리대출 50조원으로 구성된다. 즉, 10%가 주식시장에 직접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75조원)의 대상업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인공지능(총 10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기준 핵심광물(총 1개), 한국산업은행법 기준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 금융위가 지정하는 업종, 통계법(콘텐츠산업 특수분류) 기준 콘텐츠 산업이 해당된다.

2026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25/12/16)에 따르면 2026년 국민성장펀드는 총 30조원 이상 운용하며 직접투자 3조원(기금 1.5조원+민간 1.5조원), 간접투자 7조원(기금 1.5조원+민간 5.5조원), 인프라투 용자 10조원(기금 2조원+민간 8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기금 10조원)으로 구성된다.

1차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는 지난 5/29일 전량 판매되었다. 국민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이다. 5/6일 2026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위탁운용사가 선정되었다. 대형(디에스자산, 미래에셋자산, 중형(라이프자산, 마이다스에셋자산, 타임폴리오자산, 한국투자밸류자산), 소형(더제이자산, 수성자산, 오라이언자산, KB자산)으로 구성된다. 예상보다 큰 수요를 확인, 정부는 하반기 추가 공급을 결정한 상황이다. 올해 9월 2차 판매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간접투자분야) 정책성펀드 2026년 1차 위탁운용사(GP)도 선정되었다. 총 2.44조원이다. 대형(총 1조원, 스카이레이크/에이티넘인베스트), 코스닥(총1,500억원, 미래에셋/브레인), 소형(총 2,000억원, 아주IB투자/파라투스인베스트), 도전(총 1,500억원, 삼호그린인베스트/에이스톤벤처스), M&A(총 3,000억원, 웰투시엔베스트), AI/반도체 중형(총 4,000억원, 대신프라이빗/인터베스트), 프로젝트(2,400억원, 키움프라이빗)으로 구성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투자대상은 첨단전략사업기업과 그 관련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부문 자펀드 2차 선정계획도 발표했다. 2차 자펀드 운용규모는 1.6조원으로 6/10일 제안서 접수, 7월 GP 선정이다. 분야는 중형리그(2,000~4,000억원), AI/반도체(소형, 1,000억원), 스케일업리그(5,000억원), 지역전용리그(500~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위 상황들을 고려시 3Q26이후 직접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인공지능, 광물, 콘텐츠 등 12개와 관련기업(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설비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 등)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그림 1] 국민성장펀드 설립목적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국민성장펀드 운영방안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첨단전략산업기금 대상업종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시작: 26.7월 & 27.1월 부실기업 퇴출 기준 강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지난 2월에 발표했다.

4대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첫째, 시가총액이다. 기존 상향조정 계획을 조기화(연간→반기)하여 26.7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며, 27.1월에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 되지 않는다. 향후 관리 종목 지정 후 90거래일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둘째, 주가이다.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했다. 동전주는 높은 주가 변동성 및 낮은 시가총액 등의 특성으로 주가 조작의 대상으로 악용되기 쉽다는 것이 근거이다. 26.7월 이후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정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 종목에 대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 관리종목 지정 이후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 회복이 안될 경우 최종 상장폐지가 된다. 현행(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 제외)대비 상향된 조건이다. 동전주를 액면병합하는 경우에는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완전자본잠식 요건이다.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일 경우에만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었으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이 추가된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넷째,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되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의 경우 1회 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참고로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심사시 절차도 효율화된다. 코스닥 실질심사시 기업에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했으며, 올해는 1년으로 추가 축소한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 및 효율 진행하도록 법원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부실기업이 신속·엄정하게 퇴출되면, 유망한 혁신 기업들이 원활히 상장되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AI, 우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성장 제도가 도입·시행되었으며, 올해도 맞춤형 기술특례성장 대상인 혁신기술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6.1.5일, 거래소는 맞춤형 기술특례성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AI,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산업 등 핵심 기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코스닥 활성화 세부 내용: 7월 이전 발표 예상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2026/3/18일)에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및 역동성 제고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혁신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이다. 현재 초기 R&D 비용이 막대한 혁신 기술기업의 경우 기술별 특성을 갖춘 상장기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선방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전면 도입이다. 바이오(2019년), AI·우주·에너지(2025.12월) 분야 도입이 진행되었으며, 성장 잠재력, 국내기업 밸류체인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 적용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내 6개 분야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적용확대 검토 분야로 제시된 산업은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이다.

코스닥 시장을 구분하여 역동성과 경쟁력을 제고관련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성숙 기업에서 초기 성장기업 등이 한데 섞여있어 우량 기술주 시장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이 약화되어 있다. 기업간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 있어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을 낮추고, 이로 인해 기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개선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을 승강형 세그먼트(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로 나눠 역동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프리미엄은 시총 상위 대형 성숙기업으로 80~170개로 구성, 스탠다드는 코스닥 일반 스케일업 기업, 관리군은 상장폐지 우려, 거래 위험기업 등 격리·별도 관리한다. 각 세그먼트에 차별화된 진입·유지조건을 설정하여 승강제를 운영하고 부실기업은 별도 관리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개발하고 연계 ETF 도입을 통해 기관 등 투자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른 1)프리미엄 세그먼트에 해당되는 기업수가 100개 이내의 우량 기업으로 배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스탠다드 세그먼트내 중견·중형 상장사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별도지수와 ETF 등 연계 상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세그먼트를 구분하는 개편안과 세부 내용을 발표, 7월 시장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코스닥 30주년 행사에서 개편 방향을 확정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2H26내 변경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권명준)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